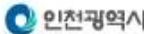
		<b>보 도 자 료</b>		2025년 <b>수도권매립지 종료</b>  인천광역시	
		배포일자	2021년 2월 26일(금) 총 3매		
담당 부서	감염병 관리과	담당자	• 감염병관리과장 김문수 ☎440-7801 • 주무관 이현희 ☎440-7854		
<b>사진</b>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<b>참고자료</b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<b>보 도 시 점</b>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인천시, ‘감염병 전문병원 유치’ 위해 민관 힘모아

- 2.25일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-
- 유치 추진 경과, 공모 참여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 논의 -
- 인천의료원, 민간의료기관 다수 공모 참여 의사 밝혀 -

-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2월 25일 인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‘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’ 회의를 열고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추진 경과, 공모 참여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- 이 날 회의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조선희 시의원과 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 지원단(부단장 김아름), 인천의료원(오윤주 진료부원장), 인천평화복지연대(정책위원장 신규철), 건강과나눔(상임이사 한성희)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.
- 민관협의체 회의에서는 인천권역 선정을 위한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방안, 공모에 참여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지원방안 및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.

- 인천은 해외 유입입구가 첫발을 내딛는 관문도시이다. 매년 5천 만 명의 입국 검역 대상자중 90%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 하고 있는 관문도시로 환자유입의 경로에 해당하는 만큼 방역의 최일선이며 최적지이다.
- 인천권역은 인천의료원,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 다수가 감염병 전문 병원 공모에 적극 참여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, 국회의원, 시의원, 시민단체의 인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한 긴급 단체 행동 등 인천 권역 선정 유치에 노력을 다하고 있다.
- 정부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하겠다고 밝힌 만큼 시는 국내 1호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고,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등을 운영하고, 일반병실을 음압병실로 전환하는 등 지역사회 감염에 헌신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인천의 의료기관들과 공모에 엄중하게 임할 방침이다.
-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메르스,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경우 대부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유입됐다. 게다가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의 요충지인 인천에 하루 빨리 감염병 전문병원이 세워 져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했다.
- 이어 “새로운 「인천형 감염병 전문병원」을 구축하고자 의료계 · 시민 단체와 함께 긴밀한 협조 체계를 마련하고, 지역 내 민간 · 공공 의료가 함께 참여 할 것” 이라고 밝혔다.

<붙임> 1. (사진자료) 2.25.(목) 민관협의체 회의 사진  
2. 민관협의체 구성 현황

## 1

## 인천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 사진



## 2

##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개요

☐ 구성인원 : 8명

☐ 구성현황

연 번	소 속	직급(직책)	성 명	비고
1	인천광역시	건강체육국장	백완근	
2	인천광역시	감염병관리과장	김문수	
3	인천광역시	보건의료정책과장	안광찬	
4	인천광역시의회	문화복지위원회 제2부위원장	조선희	
5	인천광역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	부단장	김아름	
6	인천의료원	원 장	조승연	
7	인천평화복지연대	정책위원장	신규철	
8	건강과나눔	상임이사	한성희	